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8 ~ 10/14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리셋 - 월호 스님 잠언집	월호	마음의숲
2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7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법보신문 연재 컬렉션)	김재일	책앤
3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회 신행수기 홍모 불전	모과나무	8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옹연	불광출판사
4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정우	김영사	9	임제록	종광	모과나무
5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용	용화	10	초기불교입문	각육	L



1천년 전 던진 임제 선사의 화두는?

임제록

종광 스님 강설 | 모과나무 펴냄 | 2만5천원



《임제록》은 동양 선불교사에 큰 영향을 끼친 중국 대승 사임제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어록집이다. 이 책은 달마대사로부터 전래된 순선의 사상을 최종적으로 정립시킨다. 또한 선사가 살아야 할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당대 제일의 조사 임제의현(?~86)의 생애와 사상을 전하는 선가 최고의 경전으로 꼽힌다.

핵심사상은 '무위진인'을 자각하는 것인데 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분별이나 차별이 없는 참사람이라는 의미로 임제가 설하는 인간 개개인의 본래 진면목을 말한다. 즉 인간 누구나에게 본래부터 내재된 절대주체의 본 모습을 일컫는 것으로 좋다 싫다는 차별경계 속에 몸담기 이전의 참자신이다.

임제 스님은 육조 혜능 스님의 법맥을 이은 선사였다. 육조 혜능 대사의 법을 남양회양 스님이 또한 마조 스님 제자는 '평상심시도'로 유명한 마조 스님이다. 또한 마조 스님 제자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중국 선종의 전통을 세운 백장 스님이다. 이런 백장 스님의 제자가 황벽 스님이고 그 제자가 바로 임제 스님인 것이다.

임제 스님은 조사선 불교가 찬란히 꽃피웠던 시기에 임제종을 열고 선종을 크게 진작시켰다. 선종 역사에서 임제종은 그 맥을 이은 조계종의 시작이기도 하다. 임제 스님의 칼날 같은 호령과 가르침에는 한 순간도 번뇌를 일으킬 수 없는 긴장감이 있지만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 밖에서 따로 구하지 말라'는 간절한 가르침도 있다.

특히 임제 스님의 '할(喝)'은 덕산 스님의 '방(棒)'과 더불어 조사선의 중요한 가르침이며 이것은 여전

히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하는 유명한 문구 역시 《임제록》에 실린 말이다. 입을 열고 말하는 순간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입을 닫고 말하는 순간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수처작주 입제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즉 어디든 가든지 그곳에서 주인이 되며 서 있는 그곳이 진리가 되리라는 사자후는 1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에게 생생한 가르침으로 전달되고 있다.

초심자들도 한번쯤 들어봤을 한국 선종의 교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임제록》이 대강백 종광 스님의 강설로 새롭게 태어났다. 스님은 1918년에 발행된 《교정 임제록》을 저본으로 선원과 강원, 불교 교양대학서 꾸준히 강설했다.

임제 스님 어록 담은 선가 최고 경전

대강백 종광 스님 새롭게 해석

삶의 문제 해결 위한 대안으로 활용

선종오가계표 등 삽입해 쉽게 설명

《임제록》은 임제 스님의 법문과 말씀들을 정리한 어록으로 서문, 상당, 시중, 감변, 행록, 탐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상당은 임제 스님이 직접 한 법문이기에 《임제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상당에서는 대중들에게 깨달음의 본질을 드러내며 수행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범거랑의 성격이 짙어 가장 격조 있고 품위 있는 법문이다. 시중은 상당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법문으로 대중 속에서 가르침을 보여주는 대중법문이다. 감변은 수행하는 스님들이 서로 문답이나 특이한 행동을 통해 선승 상호간의 견해를 시험하고 불법의 안목을 점검하는 것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뤄지는 선문답이자 범거랑이다. 그래서 선종이 지향하는 활발발한 현장감이 잘 살아

있다. 행록 역시 임제 스님의 삶과 수행의 여정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으며, 어떤 사람들과 어떤 범거랑을 했는지, 누구를 어떻게 교화했는지 기록한다. 종광 스님은 《임제록》을 이해하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면 임제 스님의 삶과 구도의 과정을 정리한 행록을 먼저 읽기를 권한다.

구성으로는 내용 단락을 나누고 임제 스님의 말씀서 제목을 가려 뽑아 정리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임제 스님 핵심 가르침이 담긴 제목들은 1천 년 전 임제의현 선사가 던진 화두이자 당부의 말씀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스님의 당부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삶의 진리들을 펼쳐놓은 임제 스님의 깨달음이 가득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광 스님 《임제록》의 목차는 단순히 글 쓰는 순서를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임제 스님의 화두 집약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책에서는 선불교의 탄생과 흐름에 대해 개괄 정리하고, 선종오가계보도 등을 삽입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눈길을 끈다.

임제 스님의 거침없는 직설과 질타에 어리둥절한 수행자들에게 종광 스님의 이번 책은 임제 스님의 본 뜻을 친절하게 해설하며 이해시킨다. 임제 스님의 말과 글에 머물지 않고 핵심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려 했다는 종광 스님은 단순히 고전 어록을 해설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강설했다고 한다.

불교의 목적은 개인 해탈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는 대강백 종광 스님은 자기 이익을 포기할 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궁극의 자기 이익을 얻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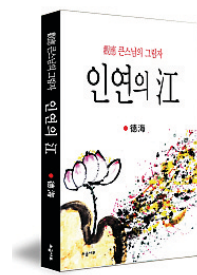
한마디로 정리하면 임제 스님의 가르침이 굳어지기 않고 직설적이라면 이번에 책을 펴낸 종광 스님의 강설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수행자들이 끊임없이 정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그림자는 그림자를 낳지 않는다”

인연의 강

덕해 지음 | 소름나무 펴냄 | 1만2천원



“내 의식 속에서 그분은 한 날 한 시도 떠나지 않고 나의 머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금방이라도 컷가 들려오는 것 같은 그분의 은화한 음성 에 젖는다.”

은화한 음성의 주인공은 최고의 포교사이자 대강백으로 한국 현대불교사에 남은 관음 스님이고, 그 은화한 음성 에 젖어 스님을 그리워하는 이는 관음 스님의 제자 덕해 스님이다.

책은 관음 스님(1910~2004) 열반 10주년을 맞아 세간에서 중부(仲父)와 조카의 혈연으로, 출세간에서는 은사와 상좌의 법연으로 키워져 스님을 평생 시봉한 세수 83세의 덕해 스님이 소년 시절 속세의 중부, 그리고 출가 후 은사에 대한 가시 없는 그리움을 담고 있다.

관음 스님은 불경뿐만 아니라 유학과 신학문, 철학에 능통했고, 유식학의 체계를 세운 거봉이며, 무문관 6년 결사는 지금도 연구에 회자되고 있다. 일찍이 동산 스님은 탄허, 운허 스님과 함께 관음 스님

관음 스님 열반 10주기 맞아

제자 덕해 스님이 쓴 '관음 스님'

을 한국불교의 삼보 스님이라고 칭송했다. 동산 스님은 범어사의 조실과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고 일찍이 불교계에 선종 진작과 정화운동을 통해 한국 불교를 중흥시킨 대선사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림자와 같으니 그림자는 그림자를 낳지 않는다.” 임제학자 전 열반계를 남겨달라는 제자의 간청에 스님이 겨우 암긴 한 마디 유언이다. 그 간소함에서 볼 수 있듯이 관음 스님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나는 산문에 틀 때부터 노장님이 임적하실 때까지 50년 넘게 스님을 모셨다. 처음 볼 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노장님은 처음 볼 때의 모습이나 마지막 모습이나 한결 같으셨다. 올해가 노장님이 임적하신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잊고계 같은데 벌써 십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스님 행장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든 것도 또한 인연일 것이다.” 그림자조차 남기려 하지 않았던 스승의 본체를 드러내기로 한 제자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학들의 간청에 못 이겨 고심 끝에 감히 스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고 덕해 스님은 출간의 과정을

밝혔다.

책은 종 다섯 개의 큰 장으로 엮였는데, 관음 스님이 걸어간 길에 제자 덕해 스님의 이야기를 곁들이고 있다. 관음 스님의 행장과도 같은 책은 스님의 개인사와 한국불교사를 함께 들려준다. 출가, 무문관 6년 등 스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쫓다보면 일제의 사찰령 공포, 정화운동 등 생생한 한국불교의 현대사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스님은 밤으로 잘 주무시고 낮으로 참선을 하시는데 계속 수행하시며 보살사에서 7 년을 머무셨다. 날마다 지척에서 스님을 모신 나는 이때가 정말 행복했다.”

또한 중부와 조카로서의 혈연과 스승과 제자로서의 법연 속에 흐르는 인연의 지중함을 읽을 수 있다.

관음 스님의 그림자는 지금도 팔십의 노구인 덕해 스님에게 드리워져 있다. 그 분이 남긴 말씀을 죽는 날까지 덕해 스님은 지키고자 한다. 그 누구보다 간간하게 종노릇하는 바람에 젊은 스님들이 견디지 못하고, 주지 맡기를 꺼려했기에 권속이 없었으며, 상좌두기를 지극 보았이 했다. 스스로에게는 가혹할 만큼 엄격했지만서도 교육과 포교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다. 덕해 스님의 서원은 종단차원이 아닌 사찰차원에서 최초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교육과 포교에 대한 열정은 은사인 관음 스님을 꼭 빼놓았다. 관음 스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덕해 스님. 그 인연의 강이 어떻게 흘러 어디로 흘러가는지 책은 어떤 때는 잔잔하게 어떤 때는 역동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준다. 관음 스님과 덕해 스님의 지난 족적을 따라 근대 한국불교의 역사가 한 눈에 펼쳐지는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진정한 불도, 출가자가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도 따듯한 충언을 곁들이고 있다.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관음 스님은

1910 경북 상주에서 출생. 경북 상주 남장사에서 출가. 직지사서 탕운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금강산 유정사 강원 출연.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학교 전신) 졸업. 일본 류큐대학 유학. 조계사 초대 주지.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직지사 주지. 조계종 원로회 부의장. 조계종 제1회 포교대상 수상. 2004년 세수 95세 법랍 76세로 입적.

저자 덕해(德海) 스님은

1932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1952년 경북 예천군 보문사에서 출가했다. 김천 직지사서 사교과를 수료했으며, 부산 동래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경기도 안양시에 보장사를 창건했으며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이사장,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으며, 보장사 영각당 준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를 열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선, 특히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을 공부함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대신심, 대본심, 대의심입니다. 그 가운데 대본심은 내가 본래 부처인데 왜 깨닫지 못하고 번뇌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한 마음입니다.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 전쟁에 나온 장수와 같이 용맹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는 결기를 지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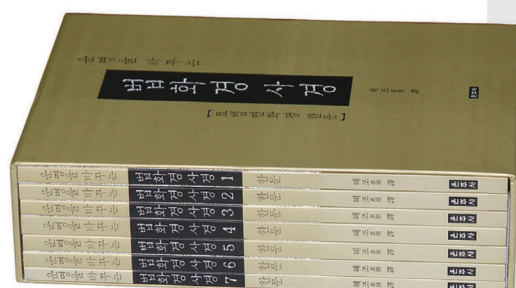
▲임제 스님의 가르침은 다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거나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략) 그러나 사람들은 경전의 말씀에,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에 감탄을 하며 밖에서 진리를 구합니다. 임제 스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경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속박이라고 일깨웁니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한 생각 한 생각마다 바깥에서 구하는 마음을 쉬어 버린다면 조사나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 그대들이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바로 그대들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철저히 못하여 밖을 향해 정진없이 헤매며 구하려고 한다.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리라.”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1,270쪽
5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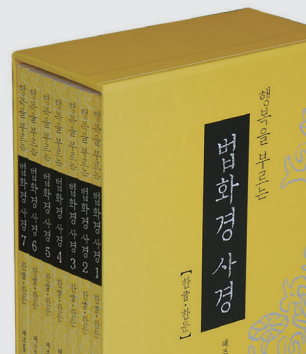
우리말 법화경 사경 (전5권)

혜조역 /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940쪽 / 40,000원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전7권)

한문 원문 및 한글음 사경에 우리말 번역 수록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1,760쪽 / 6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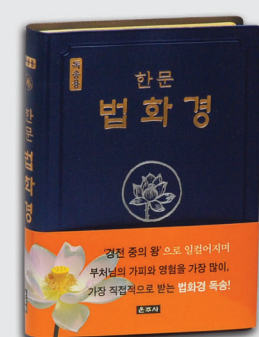
운명을 바꾸는 법화경 사경 (전7권)

한문 원문 및 한글음 사경에 우리말 번역 수록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1,760쪽 / 65,000원

고급스럽게 꾸민 새로운 장정! 유려하고 현대적인 우리말 번역!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가죽)

혜조역 / 국판양장 / 금장 630쪽
가죽: 20,000원
가죽·지퍼: 25,000원



독송용 한문 법화경

국판누락양장 / 금장 600쪽 / 18,000원

